



<제 1부> U대회 도시를 가다

지구촌이 도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유럽, 미주, 러시아의 도시들은 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 등 대형 국제이벤트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중국, 일본은 물론 한국의 도시들도 예외는 아니다. 여수는 2012 세계박람회, 대구는 '2010세계육상대회', 인천은 '2014아시안게임'을 이미 유치했다. 도시의 잠재력을 국제이벤트에 쏟아부으면서 단기간에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광주도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미 이 대회를 유치한 도시들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고, 광주만의 성공전략을 점검해 본다.



문화·역사 내세워 2005년 대회 유치

1 터키 이즈미르 (상)

여수가 '2012 세계박람회' 개최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27일, 터키의 제3도시 이즈미르(Izmir)의 시장 아지즈 코자오울르 일행도 파리 BIE 총회장에 있었다. 이들은 총회장에서 2015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3차 제안설명회를 했다. 이들의 경쟁 상대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현재 언론은 "아지즈 시장 일행이 200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을 믿거름으로 해서 '에게 해저양의 진주' 이즈미르를 유라시아를 잇는 다리 만들기 위해 꼭 밀라노를 꺾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었다.

이들의 발걸음은 사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했다. 이즈미르는 그해 5월 11일 '진 터키 대학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장이던 케말 타메르 대학스포츠연맹회장은 아메트 프리스티나 당시 이즈미르 시장에게 세계 젊은이들의 체육제전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시장은 즉각 이를 수용해 같은 해 11월 25일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에 개최 신청을 했다.

당시 터키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서두르던 상황. 이슬람국가로서 오스만 터키 시대 이후 기독교 국가들의 연합체인 EU에 가입하려면 스포츠를 통한 외교가 필요했고, '국내의 평화가 세계 평화를 이끈다'는 국부(國父) 케말 아타튀르크의 유언은 이 대목에서 딱 맞는 말이기도 했다. 터키 제3의 도시이지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이즈미르로서도 해 별만한 도

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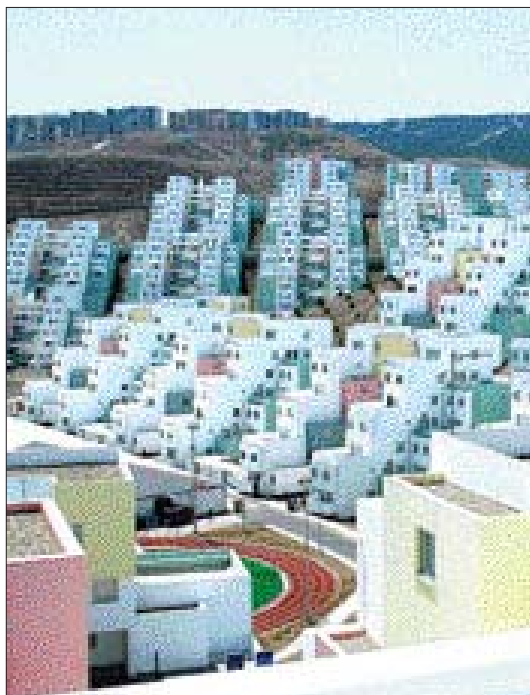
유치신청과 함께 숨가쁜 유치전이 시작됐다. 경쟁 도시는 캐나다의 '사스카툰'과 멕시코의 '몬테레이'. 이즈미르는 곧바로 아지즈 시장을 비롯, 에게대 등 5개 대학총장과 정·재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하는 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한편으로는 유치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FISU 집행위원회에 대한 공략에 들어갔다.

프리젠테이션에선 이즈미르가 지난 1971년 지중해 연안국들이 참가하는 '지중해 대회'(Mediterranean Games)를 유치한 이래 각 경기 종목별 유럽선수권대

접촉에 나섰다.

2000년 6월 14일, 이즈미르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FISU 집행위원회 투표에서 사스카툰과 몬테레이를 큰 표차로 물리치고 2005년 제23회 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로 결정됐다.

/터키 이즈미르=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이즈미르의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005년 대회 직후 일반에 분양했던 이곳은 30%이상 값이 올랐다.

/터키 이즈미르=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시장·대학 총장·정재계 인사 총 출동 FISU 위원1대1 접촉...특별법 제정도

회 등 수십차례의 국제대회 경험이 강조했다.

또 ▲관중 6만7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타튀르크' 경기장 등 국제규격을 갖춘 체육시설 ▲에게대학 등 5개대학에 다니는 30만명의 대학생 ▲'아드난 멘데레스'국제공항, 이즈미르 항구 등 육·해·공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킹 크라운 호텔'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등 특급 숙박시설 등도 강조했다. 덧붙여 이즈미르가 동양과 서양 문화가 어우러진 바다와 태양의 도시라는 것도 내세웠다.

터키의 대형 유통기업 '탄사스'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며 유치를 도왔고, 에게대학 총장과 터키 대학스포츠연맹 관계자들이 FISU 집행위원들에 대한 1대1

"U대회 치른 후 도시 급성장 했지요"

'이즈미르 U 조직위' 사브리 사무국장



'이즈미르 청년 스포츠연맹' 회장이기도 한 그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큰 일"이었다며 "경제인들이 뒷받침하고 대학총장이나 체육인, 외교관 등이 앞장서 세계스포츠연맹 집행위원들을 만나 설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즈미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니버시아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이즈미르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브리 사디클라트(50) 사무국장은 "이즈미르는 5천 년이나 된 도시지만, 대학생들이 터키내 어느 도시보다 많은 젊은 도시여서 이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렇다고 의욕만으로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중앙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각계 각층을 망라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

그는 또 "이즈미르는 대회 이후 자신감을 갖고, 2015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한번 국제 이벤트를 치르면, 그만큼 도시도 성장하는 것 같다"고 자랑했다.

2년에 한번...세계 젊은이들의 체육 축전 '2003년 대구 U대회' 경제효과 8천억원



■유니버시아드는

유니버시아드(Universiad)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여 2년에 1번씩 열리는 세계 학생스포츠대회이다.

대회는 하계 10일간, 동계 7일간 치러진다. 하계는 육상·수영(다이빙 포함)·농구·펜싱·체조·테니스·배구·수구·축구·유도·탁구·테니스·배구,

동계는 스키·피겨스케이팅·아이스하키·쇼트트랙이 정식종목이다.

광주시가 유치 신청을 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75개국 1만1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대구의 경우 8천여억원의 경제효과와 3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봤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는 올해 5월 말에 결정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irae Power Hoonjisa with tex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의 힘! (주) 미래파워 호남지사 문흥식 지사장의 임직원 일동